

제25회 생글논술경시대회

고3 인문 유형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라.

(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은 유전자에 따라 만들어진 기계이다. 유전자는 생물을 통해 다음 세대로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며,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위한 생존기
계이다. 우리가 친척을 돕는 것은, 사실 여러 친척에게 퍼져있는 어떤 유전자를 돕기 위한 작용이다. 친족관계가 멀수록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적어지
며, 친밀감도 당연히 낮아진다. 유전자는 생물의 특성을 정하며, 각 생물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유전자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중략)

성공적인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기주의'이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존 혹은 보존 가능성이다.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은 이기적이며
그 반대, 즉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이다. 유전자의 이기주의는 개체의 이기적 행동의 원인이 된다. 즉 인간은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
이기적인 생존 기계'다. 간혹 나타나는 이타적인 행위들도 알고 보면 정교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또 이기주의의 한 전략에 불과하다. 인간은 정해놓은 각본대로 유
전자의 이기적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다. 그렇다고 유전자가 개별 행동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생존에 필요한 전략을 가르쳐 주며 간접적이면서 전반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득이 되는 것은 발전시키고, 해가 되는 것은 도태시키면서 진화를 거듭하게 된다.

(나)

스키너는 동물들이 지렛대를 누를 때 부정기적으로 음식을 주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식이 나오지 않았고, 아주 가끔씩, 가령 40번을 누르거나 60번을 눌러야
음식이 나왔다. 직관적으로 보면 보상을 아무 때나 주거나 드물게 주면 좌절감이 생겨 행동이 소멸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스키너는 음식이라는 보
상을 간헐적으로 줄 때 쥐들이 그 결과와 무관하게 지렛대를 계속 누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찾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는 간헐
적 보상이 일정한 간격으로 주어질 때(가령 4의 배수로 누를 때라든지)와 일정하지 않은 간격으로 주어질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실험한 결과, 보상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행동이 소멸되기가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하! 그는 비로소 실험을 멈추었다. 그것은 파블로프의 침 흘리는 개만큼 엄청난 발견이었다. 비로소 그는 인간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행동의 대부분을 체계적으
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보상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는데도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가장 친한 여자 친구가 기분이 내킬 때만 전화를 거
는 못된 애인의 전화를 애달프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평소에 멀쩡한 남자가 연기 자욱한 카지노에만 가면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을 때까지 도박을 하다가
끔찍한 지경에 이르는지 말이다. 왜 여자들은 지나친 사랑을 하고, 남자들은 위험할 정도까지 주식 투자를 하는가? 그것은 소위 '간헐적 강화'라는 것으로, 스키너
는 그 메커니즘과 우연성이 가진 강박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의 몽고메리 페어 백화점이란 곳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여성인 로자 파크스는 지친 하루 일을 마치고 버스에
올랐다. 그 당시의 미국 버스들은 백인들과 백인이 아닌 사람들이 타야 하는 좌석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자는 유색인종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몇 개의 정거
장을 거치면서 그날따라 버스에 오르는 승객은 대부분 백인이었고 급기야 백인 좌석이 모두 차고 몇 명의 백인들이 서있어야 하자 운전기사는 버스를 세웠다. 그런
다음 그 운전기사는 백인 칸과 유색인종 칸을 구분하는 표시를 로자를 포함한 네 명의 흑인들 뒤로 옮겨버렸다. 즉 로자가 버스를 탈 때는 유색인종 구역이었는데
운전기사가 백인들을 위해 백인자리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로자를 비롯한 그 네 사람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가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다른 세 사람의 흑인은 아무 말 없이 그 명령을 따랐지만 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냐는 운전기사의 핀잔에 로자는 “내가 왜 일어
나야 하죠?”라고 저항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에 체포되는 고생을 한 뒤 풀려난 로자는 인권과 평등의 개념에 대해 한 흑인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동과 그 이
유가 옳았음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밤을 새워 3만장이 넘는 버스 보이콧 유인물을 만들어 도시 이곳저곳에 배포하였다. 당연히 “우리들이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행동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조롱하던 흑인들은 그녀의 '확신'과 '일관적 행동'에 그동안 별 다른 생각 없이 받았던 이러한 차별
에 대해 “도대체 왜?”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라)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와 후견인에게 뭔가를 빚진다. 왕 앞에 서는 이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숨겨
진 이점과 특별한 기회,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달리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세상을 바라보도
록 해준다. 언제 어디에서 성장했느냐의 문제는 큰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성취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에
깔린 논리를 밝힐 수 있다.

생물학자들은 흔히 '생태학'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조적인 차원을 설명하곤 한다. 숲에서 가장 키가 큰 상수리나무가 그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단단한
도토리에서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나무가 햇볕을 가로막지 않았고 토양이 깊고 풍요로우며 토끼가 이빨을 갈기 위해 밀동을 갉아먹지도 않았고 다 크기 전
에 벌목꾼이 잘라내지 않은 덕분에 가장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단단한 도토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빛을 준 태양, 뿌리를 내리게 해준 토양, 그리고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던 토
끼와 벌목꾼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마)

동지를 짓는 새도, 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나 새끼를 돌보기 위한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내적인 행동, 본능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행동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자기가 왜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를 인식할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면, 나는 이러한 결과를 숙고해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옳은지, 내가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다. (중략)

만약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해를 가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나는 또한 나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다. 나는 소위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다. 양심은 유한한 인간 존재에 내재해 있는 절대적 관점이다. 이 절대적 관점은 양심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감정 구조에 닿을 내리게 된다.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개의 사람 안에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자신이 동적이고 부자유하다고 느낀다. 그는 그가 다른 것을 원할 수 있기를 아주 바라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는 자기 자신과 적대 관계에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이것이 나다. 나는 달리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유의 표현이다. 그것은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사람은 자유롭다.

(바)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이 사르트르 철학의 기본명제라 할 수 있다. 무신론자인 그는 신(神)이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전통철학의 여하한 본질규정도 철저히 거부한다. 가령, 시계나 가위 같은 사물적 존재라면 미리 규정된 본질에 따라 제작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존보다 본질이 앞서나, 이에 유사한 어떤 본질규정에 따라 인간을 만든 초월적 장인(匠人) 혹은 신(神)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존재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미리 규정되지 않은 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내던져진 존재이며, 오직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물적 존재는 그냥 존재할 뿐이나, 인간존재는 이와 같이 선택하고 결단하며 행동하는 존재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자유, 선택 및 책임의 주체를 실존이라고 한다. 요컨대, 실존이 본질에 선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미리 규정된 어떤 보편적 본질에 따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에 의하여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제시문 바>는 인간 행동의 원인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700자 내외)

문제 2. 아래의 <표>는 청소년의 가출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문제 1]의 두 입장 모두를 활용하여 이 자료를 해석하시오. (30점, 600자 내외)

<표> 청소년의 가출이유

		가족적 요인	학교적 요인	이성, 동성 친구 요인	새로운 도전	심리적 요인	범죄 등 비행 요인	기타
성별	남자	62.5	11.9	2.5	2.5	13.8	1.9	5.1
	여자	62.7	3.4	5.2	2.6	21.0	0.0	5.2
합계		62.6	6.9	4.1	2.5	18.1	0.8	5.1

단위(%)

출처: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 조사』

문제 3. 다음 <자료>를 읽고 '김양'의 형량이 공범관계인 '박양'과 동일해야 하는지, 아니면 '김양'이 감형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되, [문제 1]의 두 입장 중 오직 한 입장을 선택하여 정당화하시오. (30점, 600자 내외)

<자 료>

인천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김모(17)양과 공범 박모(19)양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주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며 "범행 직후 사체 일부를 옮기기 쉽게 훼손했고 범행 전후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김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며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볼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때문에 범행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았던 김양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만 18세를 넘었던 박양에게는 원칙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소년법의 규정은 소년법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죄의 적정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 OO일보, 2018.4.